

공무원 채용 경쟁률 및 청년 시험 준비 관련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공시생)의 규모 변화는, 공무원 시험 접수 행위가 구직행위로 간주되면서, 주 수험 연령인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 이에 보고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 감소 현상이 실제 시험 관련 통계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자 함.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알아봄.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선발 예정인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인원은 최근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2022년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채용 경쟁률이 전년대비 하락함.
 - 9급 국가직 공무원 선발 예정인원은 2012년 2,180명, 2017년 4,910명, 2022년 5,67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2021년까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체로 20만 명대를 기록해 왔으나, 2022년 약 16만 5천 명으로 크게 줄어듦.

〈표 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현황

(단위 : 명, 선발 예정인원 1인당 경쟁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9급	선발 예정인원 ①	4,910	4,953	4,987	4,985	5,662	5,672
	원서 접수 인원 ②	228,368	202,978	195,322	185,203	198,110	165,524
	응시 인원 ③	172,691	155,298	154,331	131,235	156,311	127,643
	원서접수 경쟁률 ②/①	46.5	41.0	39.2	37.2	35.0	29.2
	실질 경쟁률 ③/①	35.2	31.4	30.9	26.3	27.6	22.5

주 : 1) 위 표의 인원은 행정, 우정사업, 경찰청, 고용노동, 교육행정, 선거행정, 직업상담, 세무, 관세, 통계, 교정직을 합한 인원임.
 2) 원서접수 경쟁률은 원서접수인원을 선발 예정인원으로 나눈 값, 실질 경쟁률은 시험 응시인원을 선발 예정인원으로 나눈 값임.
 자료 : 인사혁신처, 「연도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사이버국가고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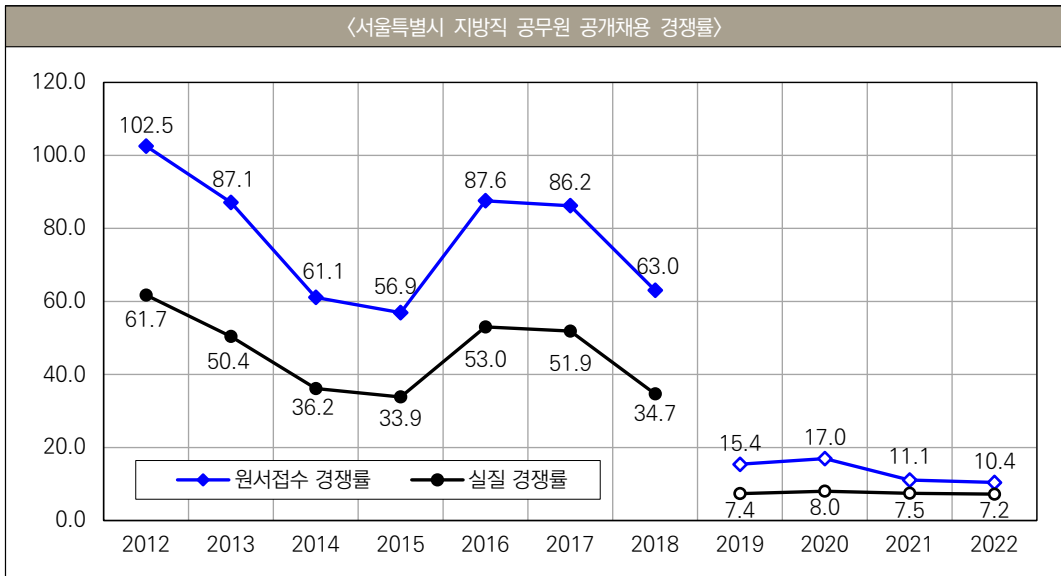
- 이에 따라 2022년 원서접수 경쟁률은 전년대비 5.8p 하락한 29.2 대 1, 응시인원을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5.1p 하락한 22.5 대 1을 기록함. 지난 10년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014년(각각 76.7 대 1, 54.7 대 1)에 비하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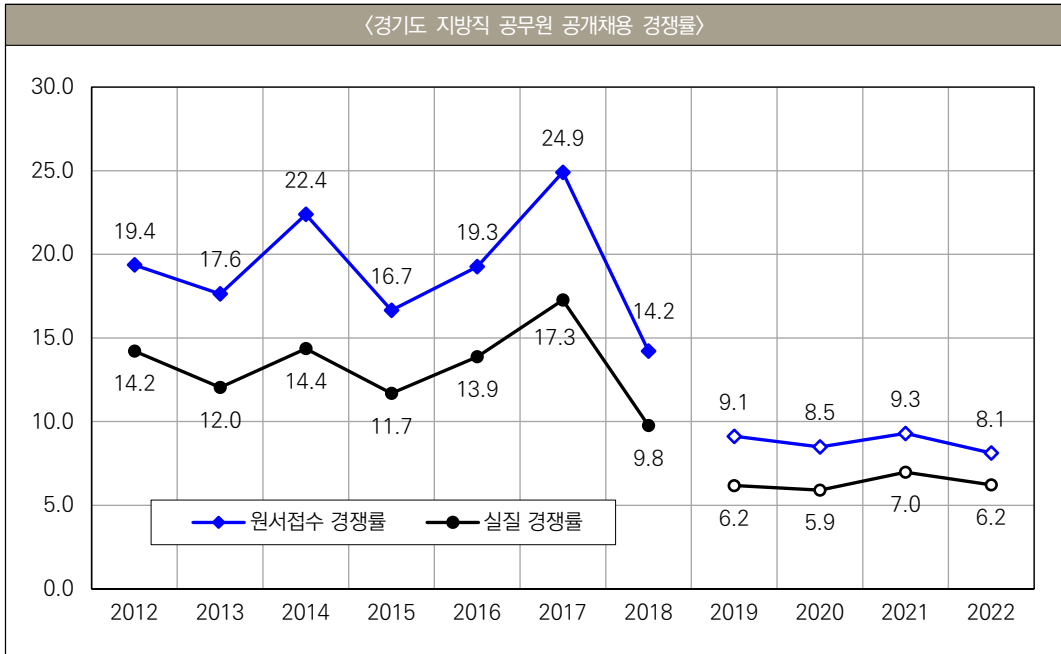
- 대표적인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원서접수 경쟁률이 102.5 대 1에 달했으나 2022년 현재는 10.4 대 1로 크게 줄어듦. 실질 경쟁률 또한 61.7 대 1에서 7.2 대 1로 하락함.
-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 역시 지난 10년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017년에 비해 약 3분의 1가량의 경쟁률인 8 대 1 수준에 머무름.
- 이 같은 시험 경쟁률 하락은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일자가 통일되면서, 원서 접수 및 응시 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된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음.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일자가 타 지자체 필기시험 일자와 달라, 상당수의 공시생들이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타 지자체 지방직 시험에 각각 응시해 왔음. 2019년부터는 모든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일자가 통일되면서 수험인원이 분산됨에 따라 지자체별 경쟁률이 하락한 측면이 있음.

[그림 1] 서울특별시(위), 경기도(아래) 지방직 공무원 8, 9급 공개경쟁채용 경쟁률 변화

(단위 : 선발 예정인원 1인당 경쟁률)



[그림 1]의 계속



주: 1) 행정직군(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등), 기술직군(공업, 농업, 녹지, 보건, 환경 등)을 합한 인원임.
 2) 원서접수 경쟁률은 원서접수인원을 선발 예정인원으로 나눈 값, 실질 경쟁률은 시험 응시인원을 선발 예정인원으로 나눈 값임.
 3) 2019년에는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필기 시험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험일과 동일하게 변경되면서 경쟁률에 큰 변화가 있음.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험통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연도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
 경기도청, 「연도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현황」.

– 그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도 응시 및 접수 인원 규모가 지자체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지방직 시험 역시 추세적인 경쟁률 하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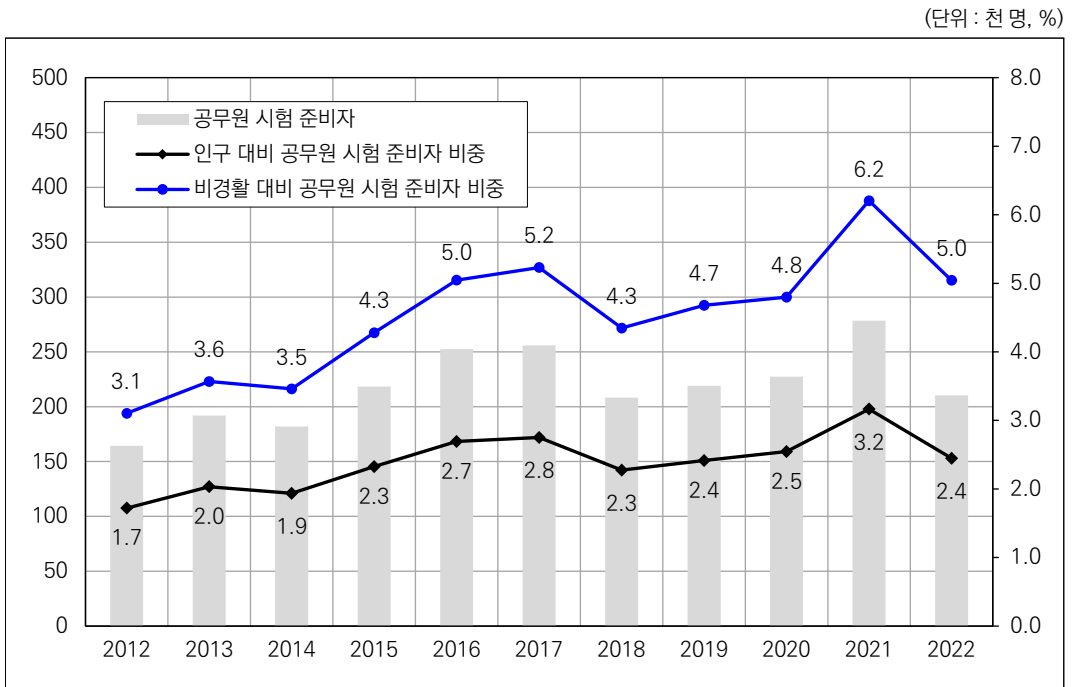
○ 위와 같은 공무원 시험 접수 및 응시 인원의 감소, 즉 공시생의 감소가 대표 통계인 경제활동 인구조사(이하 경활)에서도 관찰되는지 살펴봄¹⁾.

– 경활 상에서 공시생 전체 규모, 청년인구 대비 공시생 비중,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시생 비중 모두 2021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22년에 크게 하락함.

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에서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시험준비 경험과 준비한 시험의 유형을 질의하고 있음. 시험의 유형은 1. 언론사, 2. 공기업, 3. 대기업, 4. 교원, 5. 5급 공채, 6. 일반직 공무원, 7. 번리사·회계사, 8. 미용조리, 9. 기타로 나누고 있음. 이 중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공시생으로 정의함. 5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도 식별할 수 있지만, 그 수가 8·9급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공시생의 규모에 반영하지 않음.

- 2022년 공시생 규모는 21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2021년 대비 약 7만 명 줄어든 것으로 1년 사이 공시생 규모가 4분의 1가량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효과를 통제하여 살펴보기 위해 청년인구 대비 공시생 규모,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시생 규모를 살펴보아도 2022년 공시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 청년(15~29세) 공무원 시험 준비자(좌), 전체 청년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시험 준비자 비중(우) 추이



주: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상에 준비한 시험의 유형 문항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택한 자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각 연도.

○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는 연령대(25~29세)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 변화는 통계청 사회조사 상에서도 일부 확인됨. 국가기관을 선호하는 해당 연령대 청년층의 비중이 2021년 21.8%로 전년대비 2.3%p, 2009년대비 7.4%p 감소했음. 그러나 공기업(23.3%)과 함께 국가기관이 여전히 가장 선호되고 있는 직장 유형인 것으로 나타남²⁾. 아직까지 공직에 대한 선호가 상당 부분 남아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 선호가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서

2) 2021년 25~29세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유형 비중은 공기업(23.3%), 국가기관(21.8%), 대기업(18.5%), 자영업(16.1%) 등으로 나타남.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는 공시생 규모 축소, 시험 경쟁률 하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축소는 시험의 체계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공시생 규모의 변화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의 일자리 선호 변화를 반영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K1]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